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교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October 7, 2022 Vol. 833

“주여 회개하오니, 미국에 대부흥을 주소서!”

2022 다민족 연합기도회 회개·회복·부흥 간구

“미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미국이 범죄했습니다. 진리를 밀어내고 세속화에 물들었고 음란과 중독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합하여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에 불이 붙게 하옵소서.”

미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2022 다민족 연합기도회(대회장 한기홍 목사)가 지난 2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1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기도회는 ‘남가주 지역 다민족 교회가 연합해 기도한다’는 근본 취지를 살려 한인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백인, 흑인, 인도, 베트남, 일본 등 타민족 교회 성도들이 대거 참석해 미국이 당면한 영적 위기 극복과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기도회는 한국어 찬양뿐 아니라 영어, 스페니쉬로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졌다. 참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면서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 땅을 가득 덮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2022 다민족 연합기도회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한기홍 목사 ©기독교일보

기도회에 모인 성도들은 미국의 교만과 세속화, 인종 갈등과 탐욕, 성적인 죄악 등을 놓고 회개했으며, 대통령과 대법원, 연방의회와 정부 지도자, 교육계 리더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리더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고, 미국이 신앙 회복을 통해 도덕성과 경제, 국제적 리더십이 회복되도록 기도했다.

이날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를 촉구한 한기홍 목사는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이 나라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한 적이 없을 정도로, 미국이 하나님을 향해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며 “우리가 돌아갈 때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땅의 회복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자”고 했다.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한 엘리사 리처드 목사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은 가정에서부

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말씀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고 자녀들이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이 믿음으로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네 그룹으로 진행된 기도회에서 한국어 그룹은 3번째로 기도했으며 박성규 목사(공동대회장)가 합심기도를 인도했으며 민경엽 목사(공동대회장)가 회개를,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가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이어 오윤태 목사(순 무브먼트)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샘 한 목사(자마)가 미국의 가정과 교육 회복을 위해 기도했으며, 샘 신 목사(KACC)가 미국의 리더십과 선거를 위한 기도를 인도했다.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는 “올해 기도대회를 통해 남가주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명실공히 회복된 것 같다”며 “청교도들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운 미국이 세속화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가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미국에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다민족 연합기도회에 참여한 다민족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은 내년도 대회에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표명하고 더 많은 다민족 교회가 참여하는 대형 집회로 개최하자는 뜻을 모았다. 다민족 연합기도회 준비위원회 역시 각 지역 한인교회와 다민족 교회를 순회하며 기도팀들을 연합해 남가주에서 중보기도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상당수는 국경을 보호하고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민 해결책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라이프웨이 리서치 연구는 복음주의 이민테이블(EIT)과 월드 릴리프(World Relief)의 후원으로 2022년 8월 8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인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는 자칭 복음주의자 및 복음주의자로 인정받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입장과 이민 관련 입법 조치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 결과, 복음주의자 5명 중 4명 이상이 “합법적 이민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

미 복음주의자 80% “합법적 이민이 국가에 도움”

으며, 3명 중 2명은 “미국이 최소한 연간 승인된 합법적 이민자의 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음주의자의 25%는 “합법적 이민이 도움이 되며, 매년 허용되는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고, 40%는 “현재 승인된 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19%는 “매년 승인되는 합법적 이민을 줄이는 것에 찬성”했다.

복음주의자들은 최근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의 수를 기회로 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상당수는 그들을 위협으로 보았다.

복음주의자 5명 중 2명 이상은 이민자의 도착이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기회(46%)”이며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41%)”라고 답했다. 또 3명 중 1명(33%)은 이들을 “미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개선할 것”이라 보았으며, 19%는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했다.

부정적으로는, 복음주의자 중 33%는 “최근 이민자 수가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고, 32%는 “경제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31%는 이민자들을 “법과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으며, 26%는

“전통적인 미국 관습과 문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그럼에도, 복음주의자들은 미국이 다양한 상황에서 난민과 이민자를 받아들일 도덕적 책임이 있으며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돌봐야 한다고 믿었다.

복음주의자 5명 중 3명 이상(70%)은 미국이 난민을 받아들일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난민은 법적으로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 특정 요인에 의해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로 정의된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 Day 24hours (213)400-6363

미국 ↔ 한국 ₩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배크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소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213.820.3704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소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배크립시

배크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해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원) 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원) 국제이비스 USA 이사장
(원) 남가주 교외의외고문 변호사
(원) 재미발행가협회 고문 변호사
(원) 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선예 “저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세 가지 물음은...”

2022 밀알의밤에서 하나님의 은혜 간증

‘선예’는 역시 ‘선예’였다. 장애인 선교단체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 주관으로 열린 ‘2022 밀알의밤’에서 메인게스트로 초청된 선예는 ‘윈더걸스’ 시절의 뛰어난 가창력을 그대로 간직한 채 더욱 깊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Reset 새롭게 하소서’란 주제로 ANC온누리교회와 남가주 새누리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각각 개최된 밀알의 밤에서 선예는 <행복>, <아버지의 마음>, <광야를 지나며>, <어둔 날 다 지나고>, <회복케 하시네> 등의 CCM을 폭발적인 가창력과 특유의 맑은 목소리로 들려줬다. 호소력 짙은 찬양에는 자신이 겪었던 공허함의 무게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었다.

선예는 찬양과 함께 그녀가 겪었던 삶과 신앙의 이야기도 진솔하게 풀어냈다. 19세에 걸그룹으로 데뷔해 미국 무대에 진출할 정도로 인기 정상에 올랐지만 늘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의 공허함과 인생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다.

“수 많은 상을 받고 어린 나이에 꿈을 이룬 것에 행복하고 감사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몰려왔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진행된 2022 밀알의밤에서 간증하는 선예 ©기독교일보

그 공허함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었던 거 같아요. 그것이 해결이 안되니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안함이 아니었나 싶어요.”

선예는 이날 자신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첫째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인데 이 땅에 왜 태어난 것인가?’, 둘째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잘 사는 삶인가에 대한 삶의 목적’, 셋째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

인가?’였다. “유명인이 되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궁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미국 연예인들의 화려한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더 행복할까?’ 싶었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았어요. 더 많이 가질 수록 더 불안할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세 가지 물음에 대한 해답을 말씀에서 찾았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한 해답은 디 모테후서 1장 9장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한 해답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찾았다. 그녀는 동생이 집을 나갔음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일만 하는 형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아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됐고, 나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마지막 물음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 선예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2011년 큰 지진으로 폐허가 된 아이티로 구호활동 선교지에서 만난 ‘제임스 박’ 선교사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게 됐다.

선예는 로마서 5:8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인간적인 재능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라며 “이제 세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을 돌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곳이 선교현장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고 싶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제38회 재미고신총회 “다음 세대와 함께 자라가자” 주제로 개최



LA 로렘장로교회에서 개최된 제38회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기념촬영 ©기독교일보

신임 총회장에 한태일 목사 만장일치로 선출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이하 재미고신) 제38회 총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자라가자”(벧후3:18)라는 주제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LA 로렘장로교회(담임 박일룡 목사)에서 개최됐다.

총회장 정지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 예배는 총무 정인석 목사의 기도 이어 장로 부총회장 최점균 장로가 성경봉독을 했

으며, 부총회장 한태일 목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자라가자”(벧후3: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태일 목사는 설교에서 다음 세대의 영적 성숙과 부흥을 위해 목회자와 교단의 생각이 폭이 넓어질 것을 주문했다. 한 목사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며 “코람데오 신앙과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와 함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자”고 전했다.

설교에 이어 총회장 정지호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을 가졌으며 직전 총회장 이신구 목사의 축도 개회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한태일 목사(가든교회)를 총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비롯해 신규임원단을 교체했다. 부총회장으로는 정인석 목사(하늘꿈교회), 장로부총회장으로는 성기돈 장로(알칸사장로교회), 서기에 양성일 목사, 부서기에 석진철 목사, 회록서기에 광동호 목사, 부회록서기에 정영락 목사, 회계에 김은재 장로, 부회계에 광재규 장로를 선임했다.

한태일 목사는 고려 교단 소속이었으나 2015년 한국 고신과 고려와의 통합으로 재미고신 교단에 가입하게 됐으며, 고려측 목사로서는 처음으로 재미고신 총회장에 선출됐다.

한태일 목사는 “부족한 사람에게 큰 책무를 맡겨 주셨는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미고신 내 영어권 교회와 차세대 중고등부·대학부가 부흥하고 개혁주의와 순교자적 신앙을 이어가는데 힘쓰고자 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재미고신총회가 처음 실시한 상임총무 선거에서는 직전 총회장 정지호 목사가 단독으로 입후보했으며, 투표결과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상임총무에 관련된 논의는 이번 회기 중 더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ITS 신학대학원, 교차 문화학 박사 과정 시작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이승헌 총장)은 지난 6월 미연방 정부의 학위 인준 기관인 ATSR로부터 교차 문화학 박사(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학위 프로그램을 인준 받아 내년 1월부터 첫 수업을 시작한다.

교차문화학 박사(DICs) 프로그램의 졸업 이수 학점은 총 40학점이며, 3년 과정이다. 100% 온라인 교육이며, 영어, 한국어, 또는 중국어 과정 프로그램 중 하나에서 학업을 할 수 있다. 선교사와 현지 지도자들에게는 특별 장학금 혜택을 제공한다.

이승헌 총장은 “교차 문화학 박사 과정은 지구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을 선교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이끌 지도자를 양육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학교와 입학 관련 문의는 ITS 웹사이트 itsla.edu 혹은 이메일 admission@itsla.edu로 할 수 있다.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오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제7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 개최

에반겔리아대학교 이기훈 전도사 설교우수상 수상

미주성서화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주최하고 에반겔리아대학교(김성수 총장)가 주관한 제7회 2022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이 지난 1일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개최됐다.

올해 설교 페스티벌에는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상명 총장), 헨리아펜젤러신학대학교(정인호 총장), 미성대학교(이상훈 총장), 국제개혁대학교(박현성 총장), 그레이스미션대학교(최규남 총장), 베데스다신학대학교(김판호 총장), 월드미션대학교(임성진 총장), 에반겔리아대학교(김성수 총장) 등 남가주 지역에서 연방 정부 인가기관으로부터 인준된 12개 남가주 한인 신학대학 가운데 8개 대학 신학생들이 참가했다. 8명의 설교자들은 “이제 다시 회복의 길



제7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 기념촬영 ©기독일보

로”라는 주제로 주최측에서 제시한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 설교자들은 포스트 펜데믹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대중과 소통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를 모색

했다. 또 펜데믹 가운데 얻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교훈을 붙들고 세상의 정욕과 유혹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이 시대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과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설교 페스티벌은 코로나 펜데믹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대변하듯 대부분의 설교자가 대면 설교를 전했으며, 페스티벌 참석을 위해 한국에서 온 재학생이 있을 만큼 미주 한인 신학교 교육이 온라인을 통해 전세계로 확대됐음을 엿볼 수 있었다.

올해 대회 설교우수상은 에반겔리아대학교 이기훈 전도사가 수상했다. 설교모범상은 국제개혁대학 이성 전도사가 수상했다.

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장조은 전도사가 설교주해상을, 베데스다대학교 관 김 전도사가 설교 전달상을, 월드미션대학교 이찬희 전도사가 설교비전상을, 미주장신대 박인기 전도사가 설교발전상을, 헨리아펜젤러대학교 류지만 전도사가 설교부흥상을, 미성대 이은실 전도사가 설교은혜상을 수상했다. 수상자 선정은 각 대학에서 지정한 교수들과 청중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김동욱 기자



글로벌선진학교를 소개하는 설립 이사장 남진석 목사

사단법인 글로벌교육선교회와 글로벌선진학교(설립이사장 남진석 목사, GVCS)가 내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남미 과테말라 시티에서 ‘라틴아메리카 교육대회’(GEFLA 2023)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 과학, 기술, 엔지니어

‘글로벌 선진교육 라틴아메리카대회’ 2023년 7월 과테말라서 개막

링, 아트, 수학 등 STEAM 융합교육으로 성공적인 글로벌 교육을 이끌어온 글로벌선진학교(GVCS)의 경험을 살려 약 1천 여명의 중남미지역 초중 고등학교 현역교사들을 초청해 STEAM융합교육을 연수시키고 중남미 교육의 취약점인 음악교육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연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을 연수할 계획이며, 교사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심고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일 저녁 K-Pop형식을 빌려 복음전도 찬양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회 기간에는 대한민국과 미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멕시코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제청소년 축구대회, 글로벌 청소년 포럼 및 학력경시대회도 진행된다.

남진석 목사는 “중남미는 그동안 가톨릭

의 일방적인 독주로 인해 순수한 복음이 훼손됐고 이슬람의 급격히 확산 역시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한류의 열풍을 기회로 중남미에 바른 복음 순수한 복음을 세워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500달러의 기적 함께 일으킬 재정후원자 필요

내년도 ‘라틴아메리카 교육대회’에 참여하는 중남미 현직교사 1천 여명에게는 4박 5일간 동안 STEAM 융합교육과 음악교육 연수, 의료진료와 숙식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대회에 참여하는 한 명의 교사에게 필요한 재정은 500달러이다. 글로벌선진학교는 이들의 등록을 도울 1천 여명의 재정 후원자를 찾고 있다.

남진석 목사는 “일반적으로 선교사 한 가정을 현지로 파송하게 될 때 그들의 생활비와 선교활동비 등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비

용이 제공되어야 하고, 선교사들이 이질 문화권에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적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며 “500달러를 후원해 한 명의 교사를 후원해 중남미 교사들이 복음전도자로서 교육선교사가 되었을 때 그들이 교실에서 만나는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가족들까지 연쇄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후원을 요청했다.

남 목사는 이어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원 봉사자 및 단기선교사들을 모집하고 있다”며 “의료, 체육, 운전, 행정, 운영보조, 교사, 통역, 엔지니어, 미디어 전문가, 스페인어 복음전도사 등 중남미 복음화를 위해 함께 하실 분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회 후원 문의는 한국 070-4422-6284, 미국 301)797-8886(Ext1159)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굳건한 한미동맹, 한반도 번영과 통일시대 열 것”

한미연합회(America-Korea United Society, AKUS) 총회장 김영길(우)이 지난 28일 LA한인타운 소재 용수산에서 개최한 남가주 지회 창립 총회에서 김영구 목사가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AKUS는 한미 양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번영 및 평화 확보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현재 뉴저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조지아, 시카고, 볼티모어, 뉴욕, 아틀란타 등 미 전역에 15개 지부를 두고 있다.

김영구 목사는 취임사에서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체결한 한미방위상호조

약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한민국 공산화 의지를 막고 한반도에서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미주 한인사회의 중심인 남가주에서 애국 한인들과 함께 한미 양국의 동맹과 결속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가주 지회 창립 총회에서 강연한 AKUS 한국 대표 송대성 회장(공군 예비역 준장)은 한미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송 회장은 “6.25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도 한

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오늘날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군사·과학·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최강국인 미국과의 든든한 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은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 으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을 돌아보면 친북공조 정권이 들어섰을 경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국가 내부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윤석



한미연합회(AKUS) 김영길 총회장(좌)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김영구 목사(우) ©기독일보

열 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 한미동맹 관계가 급속하게 복원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욱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들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상담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토랜스선한목자교회 김현수 목사 은퇴 “하나님 은혜 감사”

2대 담임으로 이승혁 목사 위임

창립 21주년을 맞는 토랜스선한목자교회는 지난 2일 창립감사예배를 드리고 김현수 목사 은퇴식과 2대 이승혁 목사의 위임식을 가졌다.

교회를 개척해 섬겨 온 김현수 목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빈손 들고 앞애가 십자가를 붙드네’(188장)이다. 아무 공로 없는 빈손뿐인 나를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며 “지난 21년간 주님의교회를 섬겨주신 장로님,권사님 온 성도들께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사모에게도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토랜스 선한목자교회는 담임목사 은퇴 연령을 60세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난 1년간 온 성도가 기도하며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을 진행해왔다. 김현수 목사는 토랜스선한목자교회 원로목사 자격을 포기하고 은퇴목사로 남았다.

위임사에서 이승혁 목사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토랜스선한목자교회의 담임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당



토랜스선한목자교회 창립 21주년 감사예배 은퇴식 및 위임식 ©기독교일보

회원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린다”며 “신실한 말씀의 봉사자, 진실된 목양 봉사자로 충성되게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땀 흘리고 땀 냄새를 풍기는 목사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감사예배는 김현수 목사의 인도로 강중경

장로의 기도에 이어 디모데후서 4장 7-8절을 본문으로 KAPC 서남노회장 박규성 목사가 “의의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21년간의 김현수 목사님의 목회는 목사와 성도들의 기도와 연합으로 가능했

다”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면류관의 상급을 바라보자”고 말했다. 그는 또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의의면류관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덧붙였다.

이날 토랜스선한목자교회 파송선교사로 터키에서 15년간 사역하고 은퇴하는 김복철, 김미애 선교사에게 김현수 목사가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KAPC 서남노회 노회장 박규성 목사의 집례로 김현수 목사의 은퇴식과 이승혁 목사의 위임식이 진행됐다.

이어 KAPC 서남노회 서기 김충한 목사의 축사와 사우스베이 한인목사회 회장 윤 목목사의 축사, 김태형 목사의 권면, ANC 온누리교회 목회자들 축하후에 김동현 장로가 광고하고 김현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승혁 목사는 서강대 철학과와 동대학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클레어몬트에서 목회학석사를 이수하고 플러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과정을 밟고있다. ANC 온누리교회에서 교육전도사와, 부목사, 선교목사를 거쳐서 토랜스선한목자교회 2대 담임으로 부임했다.

이인규 기자

한빛장로교회 3대 담임으로 구경모 목사 위임



위임 감사예배에서 답사하는 구경모 목사

예배는 천방욱 은퇴 목사의 인도로 페트리시아 마틴스 밀러 부노회장의 환영 인사에 이어 소피 유리카 목회 위원장이 개회기도를 했다. 한빛장로교회 영여부 제럴드 김과 카일라 권의 성경봉독과 한빛장로교회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마크 홍 목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눅 5:1-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에이미 멘데스 목사의 노회 목회위원회 특별 헌금 인도와 한빛장로교회 권혁주 장로의 감사기도로 위임예배를 마치고 위임예식이 진행됐다.

위임식은 한빛장로교회 당회서기 박성기 장로가 위임목사를 소개하고, 샌 가브리엘 노회 노회장인 데이빗 탐린스 목사가 구경모 담임목사에게 위임서약을, 박성기 장로가 교인들에게 회중서약 후, 데이빗 탐린스 목사가 위임기도 및 선언을 했다.

이어 노회 웬디 타지마 총무가 위임패를 전달했고, 찬 문 목사의 권면에 이어 조혜정 교수(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음악과)의 반주로 테너 조한우 지휘자(웨스트힐 장로교회)가 축가로 자리를 빛냈다.

김인수 박사(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가 목사에게, 한빛장로교회 김상현 원로목사가 교인에게 각각 축사했으며, 한빛장로교회 안상현 장로가 구경모 목사에게 위임선물로 교단 스톨 증정 후 구경모 목사의 답사, 김상진 장로의 감사 선물 소개와 인사말에 이어, 구경모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47년 역사를 가진 한빛장로교회가 3대 담임으로 구경모 목사를 위임했다.

지난 2일 미국장로교회 샌 가브리엘 노회 주관으로 거행된 위임예배에는 한빛장로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노회 임원들, 미주 지역 목회자와 선교사들, 미주장신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대거 참석해 교회의 힘찬 출발을 축복했다.

이날 구경모 목사는 “하나님께서 한빛장로교회로 보내심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나아가길 소원한다”며 “보이는 현상에 쫓기지 않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걷겠다”고 위임 소감을 전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뿌리 가르칠 것”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목사)는 지난 1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및 한국참전용사기념관(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개막 감사예배를 드리고 현판식을 가졌다.

3년 전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은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10월1일을 ‘대통령 이승만의 날’로 선포했고, 로스앤젤레스 월넛시와 오렌지카운티 스텐턴시가 매년 10월1일을 ‘대통령 이승만의 날’로 선포한 바 있다.

이날 감사예배와 현판식에는 ‘대통령 이승만의 날’을 선포한 월넛시 에릭칭 시장(연방국회의원후보)과 제시카 마티네즈 위디어 시장이 참석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며 한미양국의 협력 강화에 뜻을 같이 했다.

이우호 목사는 “대한민국이 오늘 날 혼잡하게 된 배경에는 자유대한민국의 뿌리인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사상을 가르치지 않은데 있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미주한인들도 자



‘대통령이승만기념관 및 한국참전용사기념관 개막 감사예배 주요 관계자 기념촬영


유와 변영 가운데 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이우호 목사의 사회로 박성녀 목사가 기도했으며, 이성우 목사의 내외 귀빈 소개에 이어 조현영 목사가 설교했다. 조용규 의원과 남진석 목사, 김현국 목사, 김용만 목사, 커리스 목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축도는 윤건삼 목사가 했다.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김동욱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3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 (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 (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지 주관 [위 브릿지 컨퍼런스]가 남긴 넘치는 은혜

“함께 모인 것 자체가 큰 위로”

제1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 마지막날인 28일 한 목회자가 했던 솔직한 이 고백에 참석자들은 한바탕 크게 웃었다. 이러한 웃음(?) 농담은 다수의 이민교회 목회자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는 간증순서는 지난 3일간 행사에 참석했던 목회자들과 사모들의 진솔한 고백으로 또 한번 눈물과 웃음을 쏟아내는 시간이 됐다.

지난 몇 년간 교회를 4번이나 이전하고 그때마다 성도들이 모두 바뀌기를 반복해 왔다면서 울먹이는 사모의 눈물의 간증에 현장에 있는 많은 사모는 물론 목회자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목회자들은 다른 무엇보다 이렇게 서로 만난 것 자체가 너무도 큰 위로이고 선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 동안 혼자인 줄 알았고 정말 외로웠는데 이제 더 이상 혼자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이 목회자들의 일관된 고백이었다. 한 목회자는 “사람은 참 희안한 것이 있다. 일처리를 함께 받으면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편한데 그런 기분”이라고 간증했고 참석자들도 공감하며 웃음을 지었다.

3일간 일정 사이에 조별로 벌써 친목이 다져졌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지역별로 7명씩 한 조를 구성해 총 7조로 나뉘어 교제를 가졌는데 목회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속한 조원들에 벌써 애정이 생겼고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서로를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국에서도 교제할 동료가 생겼다”고 고백한 2세 목회자도 있었다.

사모들은 2개조로 나뉘어 교제가 진행됐다. 컨퍼런스 내내 웃음소리가 가장 크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가장 많았던 곳도 사모들의 조였다. 사모들은 첫 만남부터 눈물바다를 이뤘었다. 첫 찬양시간 서로 그저 바라만 봤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눈물을 쏟았다. 한 마디 안 했지만 눈빛 만으로도 마음이 통했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다고 사모들은 간증했다. 사모들로부터 언급된 가장 많은 단어는 ‘회복’이었다. 이번 3일간의 일정이 쉽이 되고 회복이 되는 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다음은 참가자들의 간증이다.

◆온리원교회 장경호 목사
개혁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도움 받고 은혜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다. 감사분들과 선배 목회자들의 메시지에도 은혜를 받지만 무엇보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같은 상황 속에서 목회하고 있는 다른 목사님들을 만난 것이 기뻐다. 팬데믹 이후 목회가 특히 힘들었는데 그 동안의 상처와 힘든 모든 것을 위로 받고 또 다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돌아보면서 힘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하늘기쁨의교회 오충성 목사
힘들고 연약한 교회가 힘들 수 있다는 자



위 브릿지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간증하고 있다. 시계방향순서로 장경호 목사, 오충성 목사, 광대규 목사, 한주봉 목사, 크리스탈 김 사모, 양성림 사모, 제임스 김 목사, 김성규 목사 ©기독일보

신감을 심어주는 기회가 됐다. 남가주의 200여 개의 교회가 팬데믹 중에 문을 닫았다는 뉴스를 접하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힘을 내기 위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강이들이 매우 유익했고 특히 목회자가 생각해야 할 복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조별 목회자의 교제가 특히 좋았다. 이제는 혼자 힘들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격려할 동료들이 생겼다.

◆생명의 길교회 광대규 목사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에 많은 것을 느끼고 보게 하셨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도 위로가 됐다. 훌륭한 강의도 도움이 되고 말씀에서도 은혜가 있었다.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향해 위로하는 시간이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
그 동안 외롭게 보냈는데 이 작은교회 네트워크 만든다는 비전을 사모하면서 여기에 와서 직접 작은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같은 심정과 같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힘이 됐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큰 용기를 얻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됐다. 작은교회에 관심을 갖고 세워주려는 큰 교회의 도움과 헌신도 감사했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커넥팅미션침례교회 한주봉 목사
사모로부터 추천을 받고 왔는데 사람과 사랑을 연결하고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그 취지가 정말 좋았다. 권준 목사의 강의를 듣고 부르심의 감격이 떠올랐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목회다. 팬데믹 지나면서 정말 어려웠지만 새로 사역을 해보고 싶다는 용기를 얻었다. 이제는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동기는 복음이라는 것을 강의를 통해 깨닫게 됐다. 우리 4조는 다양한 필드에 있는 분들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번 기회로 동역자를 만난 것에 대해 감사했다. 함께 힘을 모으고 격려하면 이뤄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같은 비전을 품은 교회들간의 만남이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더웰처치 제임스 김 목사(2세 목회자)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또 1세나 2세에게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느꼈고 큰 은혜가 됐다. 또 예배의 핵심은 좋은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다 같은 필드는 아니지만 우리 테이블에 계신 목사님들을 볼 때 한이 풀리는 것 같았다. 모두 경험이 비슷하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 앞으로도 서로 정보를 나누고 교제할 기회가 있다. 천국에 가서도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귄 것 같아 기쁘다.

◆초대교회 양성림 사모
부부동반으로 이번 컨퍼런스에 오게 된 것에 감사했다. 사모들이 모인 우리 조의 이름을 ‘쉽’으로 결정했는데 다른 조이름 후보들 중에는 ‘회복’, ‘채움’ 등도 있었다. 이번 컨퍼런스가 이런 조이름에 모두 맞는 시간이 됐다. 첫날 테이블의 사모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울면 다 같이 울었다. 개척교회의 사정을 함께 나누면서 힘을 얻고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이었다. 나눔 이야기가

끝이 없어서 며칠간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하면 정말 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처음에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컨퍼런스에 왔지만 정말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 항상 남편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함께 하겠다. 그리고 먼저 사모가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컨퍼런스 통해 느끼게 됐다. 존 최 목사의 강의를 통해 삶이 예매가 될 때 선교와 모든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됐다.

◆성암교회 크리스탈 사모
LA목회는 미국에서도 특수한 지역의 목회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 특수목회 환경에서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해오게 됐다. 2년간 은혜도 많았지만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 위 브릿지 컨퍼런스 소식을 듣고 다른 분들께 또 어떠한 헌신과 눈물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첫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모가 다 울었다. 눈빛만 봐도 서로 어떤 마음인지 통했고 서로 하나되어 격려하고 사모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느끼는 시간이었다. 여러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서 비록 팬데믹 이후 어려운 목회적 상황 속에 있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겼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로와 격려를 얻었다. 이번 컨퍼런스가 처음인데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도 교회를 다음에는 다른 교회를 돕는 위 브릿지 참여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 밖에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간증들이 쏟아졌다. 다음은 마지막날 각 조별로 간증했던 목회자들의 주요 간증이다. “LA에서 90마일 떨어진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컨퍼런스에서 따뜻함과 위로감을 느꼈다”

“목회가 너무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비교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조에 있는 목사님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다. 이미 온천도 계속 가기로 약속했다. 큰 의지가 된다”

“어디 모임 가서 교인수가 얼마인지 물으면 모일만큼 모입니다 대답하고 다녔다. 이번에는 묻는 사람이 없어서 좋았다. 같은 고통을 받는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큰 위로가 됐다” 김대원 기자

CDTV 미주기독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美 히스패닉 복음주의 신자 66% “낙태 금지 지지”

여론조사... 유권자 62% “불법 이주 허용 반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미국 히스패닉 복음주의자들이 임신 후 낙태를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기독교인 투표 장려 시민단체 마이페이스보츠(My Faith Votes)는 전미 히스패닉 기독교리더십 콘퍼런스(National Hispanic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NHCLC)와 함께 1002명의 복음주의 기독교인과 503명의 히스패닉 복음주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올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낙태 정책과 미국이 직면한 기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중 복음주의 유권자의 15%만이 “임신 중 여성이 원하는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히스패닉 복음주의 유

권자들은 12%만이 동의했다.

반면, 히스패닉 복음주의자의 약 5%는 “낙태가 임신 첫 6개월 동안만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18%는 “임신 첫 3개월 동안만 낙태가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66%는 “낙태 전면 금지”에 대해 찬성했다.

히스패닉 복음주의 유권자의 38%는 낙태가 “강간, 근친상간 또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3%는 “산모가 의료 응급 상황에 처한 경우에만 합법적 낙태를 지지” 했고, 15%는 “낙태 전면 금지”를 찬성했다.

복음주의 유권자 중 14%는 “모든 경우에 낙태가 불법화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16%는 낙태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만 합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7%는 “강간과 근친상간 또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낙태 금지”를 지지했으며, 13%는 “임신 첫 3개월”, 4%는 “임신 첫 6개월” 동안 낙태를 허용하는데 찬성했다. 반면, 임신 기간 내내 낙태 합법화를

지지한 응답자는 15%에 그쳤다.

설문조사에서 “임신 3개월차 낙태를 지지하는 의회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히스패닉 복음주의 유권자 중 8%만이 투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답했으며, 9%는 “다소 더 높다”고 밝혔다.

반면, 유권자의 39%는 지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낮다”고 말했고, 16%는 “다소 더 낮다”고 밝혔다. 나머지 28%는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거나 낮지 않을 것”이라며 중도 입장을 보였다.

전체 복음주의 유권자 중 과반수(52%)는 임신 후 낙태를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 22%는 투표 가능성이 “더 높거나 낮지 않다”고 답했으며, “다소 더 낮다(12%)”, “훨씬 더 높다(7%)”, “다소 가능성이 있다(6%)” 순이었다.

새뮤얼 로드리게스 NHCLC 회장은 “여론조사 결과는 분명하다. 어떤 (임신) 상황에서도 낙태를 지지하는 민주당은 라틴계보다 백인 엘리트 자유주의자를 선택하는 당”이라며 “당 출입문에 ‘라틴인 출입 금지’라는 팻

말을 붙인 격”이라고 질타했다.

낙태 문제와 관련하여 전체 복음주의와 히스패닉 복음주의 유권자의 견해는 거의 일치했다. 그러나 낙태 이외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히스패닉계 복음주의자들이 비히스패닉계보다 좀 더 우호적이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 남부 국경에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처리 방식과 관련해, 전체 복음주의 유권자의 75%가 반대하는 반면, 히스패닉 복음주의 유권자는 62%로 다소 낮았다. 2020년 CNN이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서도 히스패닉계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을 33% 더 지지했다.

반면, 올해 초 영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와 인터넷 시장조사기관 유고브(YouGov)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히스패닉계는 공화당 후보보다 민주당 부호를 17%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2년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김유진 기자

총격으로 딸과 25명 성도 잃은 美 목회자의 고별설교

“우리는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고 말하기로 선택했다”

지난 2017년 교회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격 사건으로 딸을 포함해 26명의 성도를 잃은 미국의 한 목회자가, 은퇴를 앞둔 마지막 설교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말씀을 인용하며 비극 속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을 간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텍사스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를 섬긴 프랭크 포메로이(Frank Pomeroy) 목사는 뱀티스트프레스(PB)와의 인터뷰에서 “습하고 추웠던 알래스카 덩굴에서 사냥 중일 때, 은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속 날 이끌어 오셨다. 이 자리는 교회가 앞으로 계속 날 나아가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전할지 생각할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말씀(행 20장)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게 하셨고, 나는 거기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그의 교회는 5년 전 끔찍한 총격 사건을

경험했다. 포메로이 목사는 지난주 사도행전 20장 17~35절을 본문으로 한 고별설교에서 “우리 교회는 승리를 선택함으로 비극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서 “우리는 증오와 추함, 피해의식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피해를) 세상에 입증하거나 우리는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라고 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그 무엇인가에 우리의 신앙을 두기로 했다. 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과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앞으로 ‘주님, 당신이 통치하십니다’라고 말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받으셔서, 서덜랜드 스프링스 교회가 언덕 위의 등대와 같이 되게 하셨다”고 간증했다.

포메로이 목사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여전히 ‘난 무신론자였다. 그러나 당신들이 이 상황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서 예수님을 높이기로 선택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있다”며 “내가 육체적으로 이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일침례교회 새 예배당. ©트위터/NAMB

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우리 각 개인이 교회이다. 우리는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일침례교회로 함께 모였다”고 말했다.

포메로이 목사는 뱀티스트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총격으로 죽은 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직도 오르락내리락한다. 자녀

를 잃은 슬픔을 온전히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가족으로서, 나의 가족뿐 아니라 교회 가족들 모두 우리의 이해보다 더 위대한 무엇인가를 바라보기로 선택했다. 비록 내가 다르게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내 딸과 다른 이들의 순교를 통해, 사람들을 당신의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고 했다.

지난 2019년 5월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일침례교회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성전에서 봉헌 예배를 드렸고, 이 예배에는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도 참석했다. 그들이 사용하던 이전 건물은 희생자들을 기념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작년 8월 이 교회는 비극이 발생한 교회 건물을 헐기로 결정했다. 교인들의 투표 결과는 찬성 69명 반대 35명이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해당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교회 건물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질문에 포메로이 목사는 “26명의 생명”이라고 답했다.

강혜진 기자

휴스턴 침례대학, ‘침례’ 대신 ‘기독교’로 교명 변경



휴스턴 기독교 대학교(Houston Christian University) ©휴스턴 기독교 대학교 제공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사립 기독교 대학이 교명에서 “침례교(Baptist)”를 삭제한 대신 “기독교(Christian)”라는 단어로 대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휴스턴 침례대학교(Houston Baptist University, HBU)는 기독교 교육 브랜드의 확장을 위해 ‘휴스턴 기독교 대학교(Houston Christian University, HCU)’로 변경했다.

로버트 슬로안 HCU 총장은 지난 21일 교수진과 직원, 전직직 이사 및 학생들과의 공개 토론회에서 교명 변경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슬로안 총장은 “HCU는 우리 모든 학생을 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봉사하는 교수진, 직원, 동문 및 지역사회를 반영한다”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수한 학업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환영 받는 독특한 기독교 대학이 되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명 변경으로 “유서 깊은 대학은 기독교 교단생활의 전 범위에 걸쳐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새로운 이름이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히 할 것”이라며 “교정에 4200명, 온라인 캠퍼스는 5800명으로 확장하기 위한 성장 캠페인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브랜딩 및 확장 계획이 이 사회의 검토를 마쳤고, 현재 등록금이나 부가 수입은 계획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명은 변경했지만, 대학 측은 텍사스 침례교 총회(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및 텍사스 남침례교 대회(Southern Baptists of Texas Convention)과의 형제적 관계는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대학 지도부가 대학 이름을 바꾼 두 번째 사례다. 이 대학은 1960년 스티uart 모리스에 의해 휴스턴 침례교 대학(Houston Baptist College)으로 시작되어 1973년 대학교로 개명했다.

HCU 설립자인 모리스는 성명에서 교명 변경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그는 “휴스턴 기독교 대학교라는 이름이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독교’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대학인 우리를 상징하는 이름에 포함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명칭 변경은 대학의 인증 상태, 등록금이나 등록금, 재정 지원 신청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든 신앙을 가진 학생들을 수용하는 기존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

다만, HCU 공식 웹사이트는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HCU 학생들은 영적 생활 행사 참석 및 정규 예배 참석을 포함하여 대학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김유진 기자

미 바나 연구 “기독교 신자가 관대할 가능성 더 높아”

기독교 신자가 비기독교인보다 관대함을 실천하며 살 확률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복음주의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Barna) 그룹과 온라인 플랫폼 글루(Glo)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성인 2016명을 대상으로 관대함을 실천하는 계기를 조사했다. 바나는 이 결과를 토대로 ‘관대함의 현황(The State of Generosity)’에 관한 세 번째 보고서 ‘베움이 좋은 이유’를 이달 발표했다.

조사에서 실천하는 기독교인의 65%가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관대함을 직접 경험했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관대함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누군가의 특별한 관대함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미국 성인의 46%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43%는 “그렇지 않다”, 11%는 “분명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관대함을 경험한 일반 대중의 감소는 신앙 공동체 및 기독교인의 실천이 그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면서 “실천하는 기독교인이 관대함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베움은 사람들이 “과거에 관대함을 경험했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54%대 36%) 또 실천하는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

(55%)은 “현재 교회에 헌금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자칭 기독교인의 헌금 비율은 25%에 그쳤다.

이어 “관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준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미국 성인의 약 3명 중 2명(63%)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실천하는 기독교인은 10명 중 약 8명(79%)이 “관대함을 배웠다”고 했다.

바나 보고서는 “이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관용을 베푸는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교회는 바울의 모범을 따라 그들의 교인을 격려하고 관대함을 보여줄 수 있다. 베품은 배움으로 시작된다”고 했다.

실제로 “관대함에 대해 배웠는가”라는 질문에 베푸는 사람의 10명 중 7명(69%)은 “그렇다”고 답했으며, 베풀지 않는 사람은 56%가 동의했다.

관대함을 배우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는 부모, 그중에서도 어머니였다. 미국 성인의 절반(49%)은 “어머니가 인생에서 관대함의 가장 좋은 모범”이라고 답했고, 35%는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반면, 실천하는 기독교인의 61%는 예수님을 관대함의 가장 좋은 예로 꼽았다.

바나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기독교인은 탁월한 기부자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베품이 선하다는 것을 안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라며 “관대함에 참여함으로써, 구속과 변혁의 사역의 의미와 기쁨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가/을/맞/이 기획전

셀리온과 유한건강생활의 부스터 세트 무료 선물 행사

더 높은 복합효과를 위해 함께하면 더 좋은 세트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탈모 예방과 발모 촉진은 모발 성장 인자가 정답입니다



헤어성장인자 함유 헤어 셀 스피클 앰플 구입시

+



디톡스화잉 + 토닉 + 헤어 셀 샴푸 + 컨디셔너 4종 플 세트

주름없는 탱탱한 피부로 가꾸는 E2F4



특허 등록된 콜라겐 섬유아 세포 성장인자 함유 E2F4 앰플 구입시



E2F4 세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유정란 배반엽 애그 스템 셀 세트



BP 앰플 구입시

+



BP 세럼

젊고 활기찬 건강관리는 믿을 수 있는 유한 건강생활 제품으로



유한양행 전용농장만의 최상급 녹용과 홍삼으로만 만든 전 녹용홍삼 스틱 구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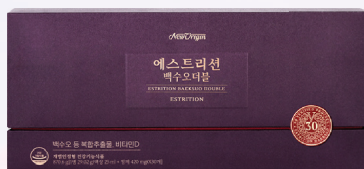
+

전홍삼 스틱

FREE



갱년기와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의 건강관리



에스트리션 백수오 더블 구입시

FREE

관절과 피부 건강관리 백수오 듀얼 콜라겐



피로한 눈, 건조한 눈, 노화된 눈 건강을 위한 복합세트

간이 좋아야 눈도 건강해진다



눈 건강 루테인 2개 구입시

+



간 건강 밀크시슬 2개

허리와 근육은 물론 뼈 건강까지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 허리를 깨끗하게 세워주는 코어 프로틴 스틱 2개 구입시

+



어골 칼슘

갱년기와 폐경기 이후 여성들의 증상 복합관리 에스트리션



에스트리션 백수오 퓨어

+

여성들 요로와 질 건강제 이노플로라 크린베리

FREE



건강하고 아름답게 셀리온

L.A. 점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13) 738-1188

부에나팍점 소스몰 1층 (714) 523-8100

얼바인점 시온마켓 정문 왼편 (949) 800-8788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성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김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386-2233

씨니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최순환 담임목사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에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한세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이슬람 선교에도 힘써, 박해받는 중동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도왔다. 1955년 그가 창립한 오픈도어선교교회에는 70여 개국에서 1300여 명의 사역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r) 오전 10:00 오전 6:30(토)

진우철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과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말씀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방송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정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9: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유초등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유초등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빙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ukmc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오픈도어 설립자 앤드류 선교사, 향년 94세로 별세

냉전시대 공산권 국가에 성경을 반입했던 기독교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를 설립한 브러더 앤드류(본명 Anne van der Bijl) 선교사가 9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국제 오픈도어는 지난 28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그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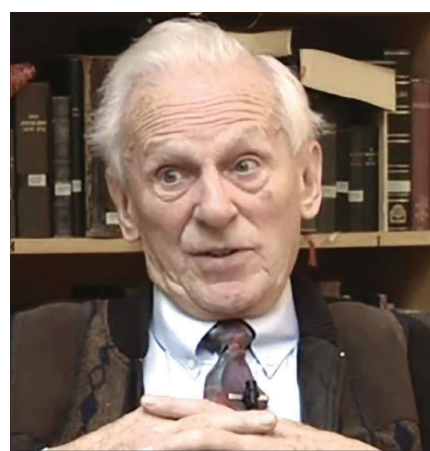
오픈도어는 "설립자인 브러더 앤드류는 세계교회를 섬기기 위해 60년 이상 125개국 이상을 방문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여정을 공유하면서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께서 앤드류의 순종과 기도를 사용하여 수백만 명의 삶과 영원을 변화시키셨다. 우리는 슬프지만 감사하다. 오늘 우리 형제가 본향으로 돌아간 것을 축하해 달라"고 전했다.

네덜란드 출신의 앤드류 선교사는 구 소련 국가들에 성경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1950년대부터 그 지역에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감시와 통제 속에서 비밀리에 성경을 전달해 '하나님의 밀수꾼'(God's Smuggler)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80년대 초반에는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성경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슬람 선교에도 힘써, 박해받는 중동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도왔다. 1955년 그가 창립한 오픈도어선교교회에는 70여 개국에서 1300여 명의 사역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매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50개국의 박해 순위를 기록한 '박



오픈도어 설립자 앤드류 선교사. ©YouTube/CheminNeuf NetforGod

해국가목록'(World Watch List)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3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박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박해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박해를 없애 달라고가 아니라, 박해를 통해 교회가 정화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박해가 없는 나라보다 박해가 있는 나라의 교회의 믿음이 더 강하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가 남긴 저서로는 '하나님의 밀수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빛의 전사' 등이 있다.

이미경 기자

미 성경박물관, 천년된 복음서 사본 반환 위해 그리스 방문



Evangelistary Manuscript 220 ©성경박물관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성경박물관의 지도자들은 1917년 불가리아 군대가 약탈한 10세기 복음서 사본을 공식 반환하기 위해 최근 그리스를 방문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Evangelistary Manuscript 220'으로 알려진 이 사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복음서 필사본 중 하나이며 제1차 세계대전 중 그리스의 코시니트자(Kosinitza) 수도원에서 약탈당한 수백여개의 귀중한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

성경박물관은 이를 알지 못한 채 2011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사본을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반환식이 최근 미국의 옐피도포로스 대주교가 주재하는 가운데 드라마의 역사적인 수도원에서 거행됐다고 CP는 전했다. 이 행사에는 에큐메니칼 총대주교청 문서담당자 아가타엔겔로스 시스코스와 하비라비 회장이자 성경박물관 설립자인 스티브 그린(Steve Green)이 참석했다.

이날 그린 회장은 크산티의 판텔레이몬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드라마 메트로폴리스의 최고 영예인 '그랜드 크로스'(Grand Cross)를 수상했다.그린 회장은 제프리 클로하 수석 큐레이터, 브라이언 하이랜드 중세 필사본 부큐레이터, 엘리자베스 프로드루로 성경박물관 이사 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CP에 "성경사본과 성경과 관련된 종교적인 물품을 상설 전시하기 위해 에큐메니칼 총대주교와 협력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르톨로메오 1세 동방정교회 세계 총대주교는 박물관 측이 사본을 돌려준 데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수도원에서 약탈된 종교적 유물이 공식적으로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 신자들과 예술 및 역사학자들, 영적 교화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수도원과 기독교 세계에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했다.

이 사본은 도난당하기 전에 수백 년 동안 종교 행사에서 사용되었다고 CP는 전했다.

성경박물관은 지난 2020년, 동방정교회 세계지도자인 바르톨로메오 1세 총대주교에게 소장본을 반환할 것을 알렸다. 그러자 총대주교는 2021년 10월부터 박물관이 해당 사본을 전시할 수 있도록 임시 허용했다.

또한 총대주교는 반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박물관의 상설 전시 행사에 3개의 사본을 추가로 대여해 줬다고 박물관은 설명했다.

최근 수년간 성경박물관은 소장품이 알려지지 않은 유물인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불법 유출로 판명된 유물들을 반환해왔다.

지난 2021년, 성경박물관은 파괴된 조각 필사본을 포함한 이집트 유물 5천여 점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 정부에 이양했다. 미국 정부는 그해 1월 27일 유물 일체를 이집트 수도 카이로 공항을 통해 본국에 반환했다.

이미경 기자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학살 '대유행 수준'... 주범은 플라니 · ISWAP

지난주 나이지리아 북부 최대 도시인 카노에서 이슬람 테러조직 서아프리카 이슬람국가(ISWAP)가 기독교인 두 명을 살해한 지 하루 만에, 플라토주에서 플라니 목동이 두 명을 추가로 살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카노주에서 지난달 25일 오후 8시경 ISWAP 일원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지역 기독교인 두 명을 총으로 쏘 숨지게 했다. 지역 주민 추쿠디 이와추쿠는 테러범들이 파게 카운티의 기독교인 주거 지역인 사본 가리의 인근 가계에 접근했다고 했다.

그는 모닝스타뉴스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테러범들은 기독교인들이 앉아 있는 상점에 와서 근거리에서 그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며 가게 주인인 "알렐추쿠는 즉사했으며 다리에 총을 맞은 에마누엘은 주일날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했다.

지난달 18일에는 나이지리아 북동부 타라바주에 있는 잘링고 마을에서 ISWAP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기독교인 소유 사업체에 폭탄 공격을 감행했다. 이들은 오후 9시 30분경 아르콜라 카운티의 ATC 지역 내 상점에서 사재 폭탄을 폭발시켜 일부 상점과 주택을 파손했다.

지역 주민 제임스 갈보는 모닝스타뉴스에 "여성과 어린 소녀 및 소년 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네 차례 공격으로 인해 가게 전체가 파괴됐다"고 호소했다.

나이지리아 위기피해자 해방센터(ECCVN)의 달롭 솔로몬 음완티리 소장은 이러한 공격이 "대략 학살 시도의 일부"라며 "이는 우리 조상들의 땅과 지구에서 전 기독교인을 없애려는 포괄적인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개월간 헤이팡, 가시시, 룬, 베렝, 와이, 졸, 바치, 라호스, 포론, 질, 브왕, 쿠루 등 기독교 공동체의 농지 600여 곳이 목동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작물 가치는 46만 2396달러(2억 나이라 이상)에 달한다"고 했다.

망구 카운티의 야나렛 마을에서는 25일 오후 7시 30분경, 플라니 목동과 무장강도의 공격으로 인해 기독교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같은 날, 보코스 카운티의 탕구르 마을에서도 플라니 목동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들이 기독교인 한 명을 납치했다고 한 지역 주민이 제보했다.

지난달 26일 새벽 1시경, 판크신 카운티의 기독교 마을 지도자도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됐다. 지역 주민 조슈아 고프웬은 모닝스타 뉴스에 보낸 제보에서 "플라니 목동과 무장 강도들이 지역사회 지도자 난쟁 고투스에게 총을 겨누어 납치했다"며 "몸값 11만 5600달러(5000만 나이라)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음완티리 ECCVN 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플라니 민병대는 리움 카운티의 메레 마을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기독교인 여성(60)을 살해했다. 또 21일 조스이스트 카운티의 리젝 마을에서는 플라니 목동들이 두 집을 공격해 여성과 10대 소녀를 납치했다.

나이지리아는 오픈도어스(Open Doors)가 선정한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World Watch List)' 명단에서 전년 도 9위에서 올해 역대 최고인 7위에 올랐다. 올해 교회 피해 사례는 470건으로, 중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다.

김유진 기자

이탈리아 첫 여성 총리 "하나님, 조국, 가족 수호할 것"



이탈리아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된 조르지아 멜로니(Giorgia Meloni). ©페이스북

이탈리아가 가족 제도 및 국가 정체성 수호에 중점을 둔 조르지오 멜로니(Giorgia Meloni)를 첫 여성 총리로 선출했다.

이탈리아형제당(Brothers of Italy) 멜로니(45) 대표는 지난 25일 진행된 총선에서 2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포스트 파시스트 정당인 '이탈리아사회운동'(Italian Social Movement)에 뿌리를 둔 이탈리아형제당은 차기 정부를 구성할 중도우파 연합의 일부다.

중도우파연합은 이탈리아 상원 200석 중 115석, 하원 400석 중 237석을 차지할 예정이다.

멜로니는 성명에서 "이탈리아인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을 맡겼다"면서 "이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 민족의 긍지와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유럽 지도자들이 개별 민족국가 아닌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조직에서 국제적·세속적 가치를 점점 더 수용함에 따라, 멜로니의 지지자들은 그녀가 하나님, 가족 및 국가의 가치를 옹호하는 데 전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류 언론 매체는 멜로니와 그녀의 정당을 파시즘과 연결시키고 있다. 보수 정치평론가 앤 칼터가 지적했듯이, 뉴욕타임스의 한 기사는 멜로니의 총선 승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파시스트'나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28번이나 사용했다.

강혜진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 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주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최희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지역

가디나 장로교회

가디나 장로교회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clive.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적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성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대흥장로교회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EM 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돌로스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은혜로교회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코너스톤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KC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오전 7:45,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 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지역

감사한인교회

감사한인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남가주동신교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 /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전 1:30

주혁로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E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다우니제일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김한오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mc.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찬양예배 오후 9:00(목), 새벽기도 오전 9:00(목)

김희철 담임목사

베델교회

베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오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행복한 교회 삼금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라짓는 교회

한기홍 담임목사

함께 걷는 교회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 breadhoon@hanmail.net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남가주늘사랑교회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csoca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일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성령님! 매일 들음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갯스월연합교회

갯스월연합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기독교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ja@gmail.com

✉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72**

■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하나님 선교의 두 구조인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에 대하여”

지금 미주에서는 전역에 걸쳐 InterCP international에서 주관하는 “비전 스쿨”이 열리고 있다 (약 60여 곳). 필자는 ‘목회자 비전 스쿨’에서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 를 맡았다. 필자는 현대의 선교 전략을 소개하면서 지역교회와 선교 단체가 서로 공존하며, 서로 협력하는 연합적 선교 방향을 중점 으로 강의하였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강의 중에 한 목사님이 질문하였다. “강사님! 모달리티와 소달 리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필 자는 용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 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강의 후 에 다시 한번 이 두 구조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학 자 랄프 윈터가 교회와 선교단체 를 사회학적으로 분류하여 모달 리티와 소달리티로 표현하였다. 모달리티는 ‘양육 지향적’ 구조로 된 공동체로 지역교회들을 대신 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리고 소달 리티는 ‘과업 지향적’ 구조로 선교 단체를 일컬어 표현된다. 성경 속 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에 이 두 구조가 다 나타나 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속적인 선교에 모달리티 구조 와 소달리티 구조가 다 필요한 것 이다. 양자의 구조는 서로를 보완 하고,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 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선 교 단체의 소달리티 구조는 전문 적 선교 전략 등을 제시하여 지역 교회의 선교 비전을 확장해 나간 다. 지역교회의 모달리티 구조는 양육된 성도들을 재결단 시켜 선 교단을 강화하고 재정 및 행정의 후원을 맡는다. 그렇게 이 두 구조 는 중요한 공생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협력해 나간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 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된 선교단을 파송하는데 역사적인 모달리티가 소달리티를 세우고 지원하며 파송하는 모델이 되었 다. 그리고 바울 선교단은 열방으 로 진출하여 그 지역 교회들을 개 척하고 세웠다. 소달리티가 지역 모달리티를 세웠다. 이렇게 모달 리티와 소달리티의 관계는 서로 보완, 협력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 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두 구조의 지렛대가 되는 것이다.

현재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장기 선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생겼다. 그 나라에서 거주할 때 필요 한 거주국의 비자 신청이나 연장 신청에서 불가를 받는 것이다. 갈 수록 장기 선교사들의 현지 생활 입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 교 회에서 파송 받은 중 단기 선교팀 들이 현대 이슬람 선교의 모형이 되고 있다. 그들은 전문적 전략으 로 의료선교나 농업선교, NGO 봉 사 등 다양한 형태의 선교 전략을 갖고 현지에 적합한 형태의 중 단 기 선교를 실행하고 있다. 장기 선 교사들은 비즈니스 미션에 대한 전략 선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지에 커피숍을 오픈하고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장 기 선교사들도 일을 하며 비자를 확보하면서 비즈니스를 선교 거 점으로 삼아 선교 활동을 병행하 는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정말로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의 뜻은 온 열방에 하나님을 예배하 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악한 사탄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우는 사자처 럼 달려들어 하나님의 선교를 방 해하고 공격한다. 날마다 영적 전 쟁을 치르면서 이겨 내는 현장이 선교지이다.

필자는 최근 여러 선교대회에 초청을 받아 참여하였다. 수많은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듣고, 그들 의 필요를 전해 들었다. 또한 선교 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시 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 는 목회자들과 지역 교회들에게도 초청을 받아 다녀왔다. 그렇게 지 역교회와 선교지 선교사들을 소 개하여 현지를 교인들과 함께 다 녀오기도 하였다. 필자는 제안한 다. 선교를 시작하는 교회들은 전 문 선교단체의 선교 프로그램과 훈련에 참여하여 선교의 사전 지 식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서머셋 모음의 “인간의 굴레”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필립은 유년시절에 어머니와 아 버지를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 한 후 목사인 큰아버지 집에서 큰 아버지 보호 아래 유년시절을 보냈 습니다. 필립은 선천적으로 한 쪽발이 불구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 친구 들의 절름발이라고 놀림과 학대를 받은 후부터 자신의 불구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장애에 대한 상처는 그가 30살이 될 때까지 큰 상처로 있습니다.

대학을 가야 할 나이에 필립은 큰 아버지로 부터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할 것을 권유받습니다. 하지만 그 는 독일 유학을 희망하여 독일 하이 델베르크 대학으로 갑니다. 그는 그 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영국 으로 돌아온 필립은 회계사 사무실 에 근무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자신 이 그림에 재능이 있음을 알고 화가 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필립은 그림 공부를 위해서 파리 로 갑니다. 파리에서 필립은 많은 예술가 지망생들과 사귀면서 보헤 미안적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해도 발전이 없자 자 신에게는 큰 재능이 없음을 깨닫습 니다. 그리고 말로만 ‘예술가’라는 것과 삼류의 가난한 예술가로 청춘 을 보내다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화가의 길을 접습니다.

영국에 돌아온 필립은 진로를 생 각하다 자신의 부친이 의사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길을 따르 기로 하고 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는 부친의 유산으로 어려움 없이 의과대학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는 단골로 식사하는 작은 음식점에 서 만난 탕녀 밀드레드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밀드레드는 허영심이 많고 진실 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필립은 그런 밀드레드의 실체를 알면서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밀드레드는 처음부터 절름발이의 필립을 좋아 하지 않았지만, 필립의 돈이 탐나서 필립을 만났고 필립을 사랑하는 척 을 연기했던 것이었습니다.

필립은 밀드레드에게 농락당하 면서 그녀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 오했고 또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필 립은 어느 날 헤어지자는 그녀에게 매달려 보지만 그녀 마음은 요지부 동이었습니다. 필립은 정말 내키지 않지만 자신이 절름발이라는 사실 을 내세워 동정심에 호소하면서까 지 그녀를 붙잡았지만 얼마 가지 못 했습니다. 밀드레드는 곧 다른 남자

였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당시 필립 에게 돈은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돈이 너무 부족한 필립은 마음속 으로 연로하고 병이 든 큰 아버지가 죽으면 받게 될 유산을 생각하였습 니다. 그래서 그는 우습게도 큰 아 버지가 죽었다는 편지가 오기를 학 수고대하며 2년 동안이나 기다립니 다. 2년 후에 큰 아버지 사망 소식이 왔습니다. 필립은 유산을 물려받고 의과대학으로 돌아가 의사 공부를 계속 합니다.

필립은 환자로 알게 된 아테르니 집안과 친하게 지내다가 그 집의 딸 샬리라는 처녀를 만나 사랑에 빠집 니다. 샬리와 사랑을 하면서 필립은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가정을 갖 고 싶었던 필립은 아름답고 친절한 샬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청혼하 는 것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이상은 서머셋 몸의 <인간의 굴 레>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서머셋은 역사상 가장 능숙한 이야기꾼 중의 하나로 인정받습니다. 그는 외교관의 아들로 태어나 의사가 됩 니다. 그러나 그의 문학적 열정과 재능은 그를 작가로 살게 합니다. 서머셋 몸은 <달과 6펜스>, <면도날 >, <인생의 베일>, <인간의 굴레에 서> 등 영문학 최고 걸작의 반열에 올라선 작품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장편 소설, 희곡, 단편 소설, 에 세이 등 장르를 넘나드는 활발한 작 품 활동으로 문학과 대중성을 동 시에 인정받은 작가입니다.

서머셋 몸은 <인간의 굴레>에서 자신의 성장 과정을 그리며 인간의 성장을 설명합니다. 주인공 필립은 고아, 장애, 가난, 고독, 방황이라는 굴레가 많았습니다. 그는 이 굴레를 벗어 가며 성장합니다. ‘굴레’를 벗 어가며 성장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일평생 성장합니다. 굴레에 매여 좌 절하고 핑계만 일삼는 사람은 아무 리 젊어도 노인입니다. 아무리 고통 이어도 굴레를 벗고 변화된 삶을 모 색한다면 성장하는 젊은이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굴레들을 극복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 은 성장과 변화를 도모합니다. 신앙 은 죄의 굴레를 벗어 던지게 합니 다. 신약성경은 “엎매이기 쉬운 죄 를 벗어 버리라! (히12:1)”고 도전 합니다. 신앙은 이런 굴레를 벗어 버 릴 힘을 줍니다. 신앙은 낙심과 실 패의 굴레를 벗어 던지게 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믿음으로 굴레를 벗어 던지고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 기를 바랍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AACS 인증
- 기독교대학의 리더십(CDL) 인정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일일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원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AACS, SACS 인증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AACS, ATS, SACS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신교학 박사 (D.Min)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i.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섬김으로 받은 복

열왕기하 8:1-6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권속과 함께 거할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칠 년 동안 임하라 2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칠 년을 우거하다가 3 칠 년이 다하며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니 4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5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6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소임을 감당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대는 지금과 같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믿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회를 갖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집집마다 축호심방을 하면서 양떼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시키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게하시라는 시종과 함께 양의 가족에 쓴 두루마리 성경을 어깨에 지고 축호 전도 심방을 다닐 때에 수넵이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수넵이라는 곳은 다보산 밑 서남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서 80km 더 떨어진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엘리사가 이곳을 지나다가 한 귀부인을 만나 저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왕하4:8). 간관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권했다는 말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기어코 자기 집에 방문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대접을 잘 받고 예배도 드리고 떠날 때에 그 여인은 이 근처로 방문목회를 위해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자신의 집에 들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도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시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왕하

4:9-10)”했습니다. 이때 집 안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방을 만드는 일에 남편이 쾌히 승낙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그 여인의 신앙 인격과 신뢰할만한 행동, 예절이 남편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항상 그곳에 들렀고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엘리사는 이 여인의 지극정성에 마음에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여인에게 하늘의 소망과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주셨고 그 여인을 통해 엘리사가 편히 쉬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지만 그 여인의 정성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시켜 그 여인을 오라해서 흑시 왕이나 장관에게 무슨 무탁을 하고 해결받을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이때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쁨부음을 받던 때라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절대 그런 일은 없으며 우리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답을 합니다. 엘리사는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하니 게하시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내년 돌이 되면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당황스럽고 믿겨지지 않았지만 내년 돌이 되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얻게 된 아들이 자랐다고 했으니 3~4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반나절을 앓다가 죽습니다. 이때 수넵 여인은 그 죽은 아들을 2층 엘리사가 사용하던 방에 눕히고는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녀는 엘리사의 발을 잡고 통곡을 합니다. 열왕기하 4:28에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게하시를 시켜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빨리 가서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굳이 가지 않아도 지팡이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게하시의 뒤를 따라 그 여인과 함께 아이에게로 갑니다. 가는 길에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얹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재채기를 7번하고는 눈을 떴습니다. 그토록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고, 또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과정을 통하여 부활신앙의 믿음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후로도 지속적으로 엘리사의 양떼로 있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넵 여인에게 “너는 일어나서 네 권속과 함께 거할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칠 년 동안 임하라”고 합니다. 이 백성의 죄값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살리는 체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 많은 재산을 그대로 두고 약간의 돈을 챙겨 엘리사가 떠나라고 한 블레셋 땅으로 떠났습니다.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7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지났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는 아들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수넵 여인은 자신의 전토를 다른 사람이 경작한 것을 보고 그것을 되돌려 받기 위해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왕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이적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수넵 여인이 이같은 상황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껏 말한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제껏 게하시를 통해 들은 이야기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는 그 여인을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하였습니다.

이 수넵 여인은 어째서 이런 요긴한 복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아보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4:9에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한 것처럼 엘리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살리시는 회복의 은혜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거룩한 뜻을 좇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요긴하고 소중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목자와 양떼의 관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시는 목자라면 그를 통하여 양떼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하게 하시어 결과가 유익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영적인 성과를 위한 섬김의 충정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게 될 때 그 인생은 세상사는 날 동안 세상조건으로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보장이 따른다는 것을 이 수넵 여인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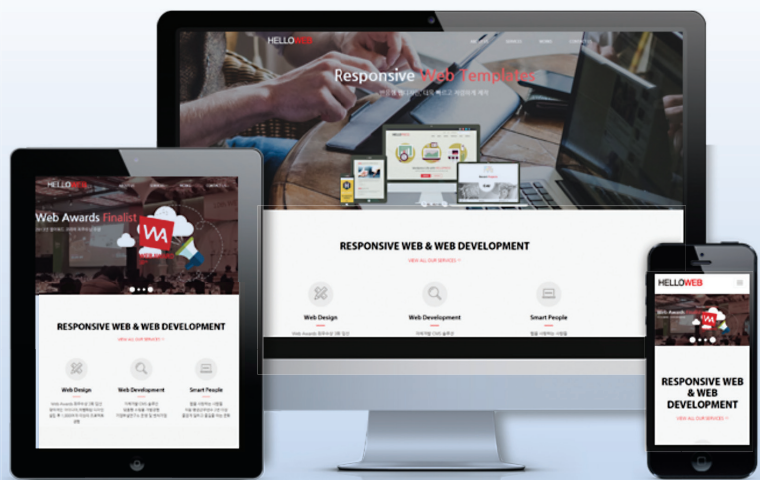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교회 웹사이트 제작 \$300

개척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님들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드립니다.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PC, 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에 맞게 디스플레이 되는 웹사이트)

제작비	\$300 +
기본사항	Front Page + 5pages (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약함) 소개/비전/사역/설교/계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추가사항	1Page 초과시 \$50 추가 한 영 페이지 제작시 \$100 추가 (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약함) 소개/비전/사역/설교/계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관리비	\$20/월(호스팅) - CPanel, SSL, Mail \$30/월(관리비) - 선택가능

웹사이트는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Cpanel 및 Admin 정보 제공함 (관리내역: 비 정기적인 웹사이트 콘텐츠 수정 및 Update) 정기적인 유지관리 요청시 별도 협의

계약 외 서비스

월 관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웹사이트 수정은 유료임

Text 수정 : \$10 +
이미지 작업 : \$20 +
기타 서비스는 내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강준민 칼럼

조금씩, 자주 사랑을 표현하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행복에 관해 시리즈 설교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행복에 관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 행복에 대해 더욱 연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행복의 비결은 작은 것,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신비롭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망각하고 쓸모없는 것들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보다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간직하며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행복의 비결도 거듭 배워 우리 기억 속에 새겨야 합니다. 행복했던 경험과 행복의 비결을 반추하는 것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행복의 열쇠가 되는 대화 방식에 대해서는 잘 배

우고 연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해 스스로 불평합니다. 행복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행복의 길이 쉽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행복도 배운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실천하는 것만큼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의 비밀 중의 하나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깨달은 것은, 아내는 큰 것에 감동 받기보다 작고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존중하는 마음과 작은 표현에 감동받습니다. 부부 감정 코칭의 전문가인 존 가트먼 박사는 “조금씩, 자주 사랑을 표현하라”고 부탁합니다. 무엇이든 시작은 작아도 그것이 지속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가 조금씩, 자주 표현해야 할 것 중에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사랑을 조금씩, 자주 표현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사랑에 있습니다. 가끔 깊은 사랑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분을 만납니다. 무슨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랑을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스카 험머스타인은 “좋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

도 한쪽으로 치워 놓아선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라고 《사랑》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종이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닌 것처럼 사랑도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표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표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표현을 통해 소통이 가능해 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은 바위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날마다 구워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밥이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제 밥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날마다 빵을 굽는 것처럼 사랑도 날마다 자주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은 사랑은 거대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비난과 경멸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 변화됩니다.

둘째, 감사를 조금씩, 자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감사 속에 행복의 비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샘 크립트리는 “감사는 영혼의 행복을 지켜 주는 강력한 수호자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좋은 것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전개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소중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넘어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샘 크립트리는 “감사는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에야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중의 한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눅 17:11-19).

셋째, 칭찬을 조금씩, 자주 표현하십시오. 존 가트먼은 가장 나쁜 대화방식은 “경멸”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대화방식은 존중입니다. 칭찬은 존중의 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것은 그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좋은 점, 잘하는 점을 보고 칭찬한다는 것은 그의 가치를 더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은 아부와 다릅니다. 아부는 상대방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칭찬은 상대방에게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칭찬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칭찬을 통해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칭찬을 통해 하던 일을 지속하게 되고, 더욱 잘하게 됩니다. 사랑, 감사, 그리고 칭찬을 조금씩, 자주 표현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민중기 칼럼

삭개오를 통해 보는 구원과 성숙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수년 전 아내가 담낭 치료를 위하여 고국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숙제 중의 하나는 아내가 기르는 나무와 화초에 물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반 잊은 채로 지내다가 기억하고는 한두 번 물을 주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준 것은 아내가 오기 직전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물을 주었던 나무에 작은 아기 손 같은 새 이파리가 나온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여!” 나도 모르게

경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쁘게 자라난 새싹을 보니 나무나 화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 좀 보라”는 아내의 탄성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라”는 경탄의 이야기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신앙생활은 과정(process)이며, 그것도 발전과정(developmental process)입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성도를 크게 자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예녹, 당대의 의인 노아,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그 들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탄에게 ‘나의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고 또 자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구원과 성숙의 또 다른 모델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당시의 사회는 명예-수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거룩-부정함이 나뉘 분명히 구별되

는 사회입니다. 성전-집이 대조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삭개오를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수치스러운 반역자이고, 배척되어야 할 부정하고 불의한 세리이고, 무엇보다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기 어려운 죄인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안타까움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파격적인 분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다른 사람처럼 가까이 가서 만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군중 사이에서 보기도 힘듭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은 “의롭고 정결한 자”인데, 실제로는 죄 많은 벌레로 취급되는 상황입니다. 삭개오는 미리 나무에 올라가 기다려, 예수를 보려 합니다.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간절함의 상징입니다. 꼭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강력한 아우성과 발돋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소망으로 자신의 창피함이나 명예를 돌아보지 않았습니

다. 이 간절함과 겸손함이 예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예수의 눈에 띄었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은 의외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관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속됨의 구분, 의인과 죄인의 범주, 구원과 저주의 관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방인의 차이를 바꿉니다. 신앙의 성숙을 막아왔던 정죄와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 구원의 감격이 새싹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를 향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예수님의 선언은 구원의 선포,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에 대한 교훈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받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놓고, 토색한 것을 4배로 보상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회개의 분명한 열매를 맺습니다.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2.99%이자가능

NEW 2022 HYUNDAI IONIQ5 SE

NEW 2022 HYUNDAI TUCSON SE

NEW 2022 HYUNDAI SANTA FE SE

NEW 2022 HYUNDAI SANTA CRUZ SE

2.99%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60 Months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진유철 칼럼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승리한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무엇도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단지 깨닫지 못하거나 붙들지 않는 사람만 사명을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고의 환경인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풍요를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신세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

을 붙들지 않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어렵고 힘든 상황과 조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과 사랑의 일들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돈이 많거나, 높은 직분을 갖거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20:24)

미국 동부의 명문 고등학교로 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부시 대통령 부자도 나온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학교의 교훈이 라틴어로 ‘Non Sibi (not for self,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인데, 사명을 붙들고 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사학으로 유명한 거창 고등학교의 직업 심계명은 학생들로 하여

금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 다섯, 앞을 닦아 두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적이라는 면에서는 사명과 유사하지만 상반된 것이 욕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욕심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사명의 목적은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사명을 붙들었기에 부활의 첫 열매로 최고의 승리를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명이 없이 무니만 크리스천이 되어 살면 육체의 생각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을 붙들고 살면 놀랍게도 옛사람을 이기고 세상과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가치 있고 보람 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명을 붙들고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고

연해주 한인마을 ‘신한촌’ -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사명 (4)



김 중 덕 목사
TIS(Trinity In Society) 연구소장

1. 한민족 초기 디아스포라, 연해주 한인 역사와 그 의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28:19,20)”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다. 하지만 1910년 나라를 잃고 1938년 일본의 강압적 탄압으로 신사참배 결의안을 결의하는 아픔을 겪는다. 신사참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신사참배 결의안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들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규정했지만, 실상은 일본 천황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우상숭배였고 배교행위였다. 결국 복음은 변질되었고 한국교회는 복음의 기근을 경험한다.

다행히 1860년대와 1870년대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초기 이민자들은 조선 밖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청나라는 1658년 만주족의 발원지를 성지화하기 위해 압록강과 두

만강 일대 중국 동북지역에 만주족 외에는 다른민족이 거주할 수 없게 ‘봉금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한족(漢族)의 이주를 막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조선인의 침입을 막아왔다.

그런데 1875년 청조는 길림성 동남부 지역에 ‘봉금정책’을 해지한다. 그리고 1882년 두만강 이북 지역에 대한 봉금을 해제한다. 이는 1860년대부터 만주지역에 잡입해 농토를 개간해온 조선인들을 공식적으로 묵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조선은 1883년 도문강(대동강) 월강금지령을 철폐한다. 1858년, 러시아는 아편전쟁으로 약화된 청에 ‘아이훈조약’을 맺음으로 부동항 연해주를 얻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급기야 1860년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북경조약’을 맺어야할 청조를 도와 이를 성사시켜 줌으로 연해주를 얻는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초기 이민자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중국 만주지역으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게 되는데, 훗날 이들이 조선인으로서 중국과 러시아 국적을 얻는 배경을 제공해 준다.

◆연해주 한인마을, 신한촌

고려인(카라이스키)은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국가들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이르는 말이다. 이들 국가들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이 포함된다. 약 50만 명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거주한다. 이들의 조상들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으로 강제 이주된다.

언제부터 연해주에 한인이 거주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1860년대와 1870년대에 조선 땅에 기근, 흉수, 자연재해가 빈번했는데 이때 생존을 위해 두만강을 넘어 농토를 개간했던 조선인들이 비옥한 땅을 찾아 점차 연해주지역으로 이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1860년 러시아는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얻어 부동항 획득에 성공하는데, 그 이후 1863년 국경 감시소 책임자가 연해주 군 총독에게 보낸 보고서를 보면, “빈곤, 굶주림, 착취를 피해 한인 13가구가 비밀리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고 이들이 정착을 허락해 달라고 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1864년 남녀 60명으로 구성된 14가구가 지신허강에 정착하여 한인마을을 이루었다는 기록이 있다. 약간의 연대 차이는 있지만, 1863년 혹은 1864년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안중근의사와 의병장 유인석, 홍범도가 연해주로 망명한다. 이들은 1908년 전후 최재형 등과 연합하여 의병단(義兵團)을 정비, 1910년 5월 13도의군을 편성하여 국내진입작전을 전개한다.

이어 1907년 헤이그에 밀사로 파견되었던 이상설, 이우중 등이 국내로 들오갈 수 없어 연해주에 정착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1911년 항일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勸業會) 설립된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때 일제의 탄압을 피해 이주한 일반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연해주로 이주하면서 점점 한인들의 규모는 커져갔다.

당시 연해주 신한촌은 조선의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기지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 그 예로, 1908년 4월 연해주 연우에서 최재형, 이범윤, 안중근, 이우중, 엄인섭을 중심으로 ‘동의회’가 결성된다. 동의회는 대한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에 비중을 두어 활동했다. 동의회 회원이었던 안중근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중국 헤이룽장성의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할 때, 연해주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라 불리는 최재형선생은 안중근 의사의 암살작전을 도왔고, 그가 붙잡힌 후에도 러시아인 변호사를 직접 준비해 안중근 의사의 석방을 도왔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가족까지 보살폈다.

1919년 2월 연해주에서 임시정부를 선언한다. 그리고 3월 1일 대한독립만세운동 이후, 3월 17일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 임정이 수립된다. 이후 같은 해 4월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국내에서도 한성정부가 수립되면서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때 대한국민의회는 상해 임시정부에 편입되면서 9월 11일 상해를 거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큰 공헌을 한다.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되기 전 이곳에 거주한 고려인들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최소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1920년 4월 일본은 독립군색출작전이란 명목으로 신한촌을 급습한다. 이에 다수의 한인들이 참변을 당했다. 이때 최재형선생도 살해당한다. 안타깝게도 이후 항일투쟁 주무대는 중국으로 옮겨지게 된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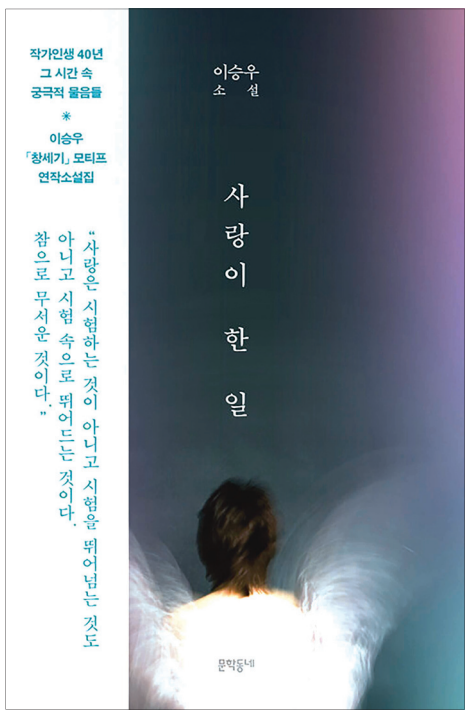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o AUTO COLLISION CENTER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미의 정성이 한 가득...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이성구의 기독교 문학을 만나다] 소설은 우선 재미있어야 하지만...

롯, 하갈, 이삭, 에서, 야곱... 창세기 속 사랑에 대한 깊은 의미



사랑이 한 일
이승우
문학동네 | 248쪽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한 이야기입니다. <하갈의 노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시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한 일>은 이삭의 관점에서 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허기와 탐식>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통해 본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려 도망자가 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우리나라의 굼직한 문학상들을 거의 다 수상한 소설가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도 그의 작품들이 번역 소개되어 찬사를 받았습니 다. 소설가로 40년을 넘게 살아왔다는 자체로 그의 소설을 믿고 읽을 만한 근거도 됩니다.

그의 소설은 기독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심리를 밀도 높은 통찰력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소설가의 관점에서 본 창세기’라는 부제를 달아도 될 만큼, 창세기에 대한 소설가다운 궁극증으로 소설가다운 풀이 방식으로 궁극증들을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롯에게 찾아온 두 명의 천사는 어떤 의미이고, 왜 사람들은 그들을 내놓으라고 했을까?’(소돔의 하룻밤), ‘주인 사랑의 뜻대로 하여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버림받은 하갈의 심정은 어땠을까?’(하갈의 노래),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사랑이 한 일), ‘어렵게 낳은 두 아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가 된 이삭이 복을 내려주는 강복이 아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축복을 한 번밖에 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허기와 탐식), ‘땅을 기반으로 한 바벨탑과 하늘을 기반으로 한 사다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야곱의 사다리)

이런 궁극증을 가지고 소설로 풀어냈다는 자체가 아주 놀랍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와서 오랜 시간 소설가로서 위치한 이승우만이 찾을 수 있고 그려낼 수 있는 소설입니다.

신학적인 바탕없이 소설만 쓰는 작가로는 닿을 수 없는 깊이의 정점에서 채굴한 호기심과, 그 호기심보다 깊은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 소설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 이승우가 쓴 방법은 언어유희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궁금하지 않을 상황과 넘어갈 수 있는 구절에서 의문을 제시하고, 언어유희를 통해 의미를 곱씹게 합니다.

하나의 상황을 두고 언어유희를 통해 여러 이야기를 만들고, 하나의 구절에서도 몇 개의 목상을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대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기대대로 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으면서도 기대를 내버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39쪽)”, “신이 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었다. 지나친 사랑 때문에 불

가능해진,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린 그것을 하라는 것이었다.(101쪽)”, “맛을 모르는 사람이 먹는 것을 좋아할 리 없다. 맛을 모르는 사람만이 탐식할 수 있다. 탐식을 위해서는 미각의 통제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151쪽)”

또 소설가의 시선으로 본 창세기의 사랑 이야기는 새롭습니다. 성경을 공부한 신학자가 쓴 소설이었다면 딱딱할 수 있고 피상적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소설가의 시선으로 입체적이 되고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감을 일으키게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확장시키는 이야기의 고리는 신선하면서 탄탄하기까지 합니다.



카라바조(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1517-1610)의 그림 '이삭의 희생(Sacrifice of Isaac)'. ©유키

기독교 소설로 중요한 자리 차지할 만 두 번째 읽었을 때 조금 진가를 알았다 무게감 견디다 보면 가벼움도 느껴져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5개의 단편 소설로 구성되었지만, 하나의 장편 소설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5개의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문학적인 강해서’로 분류해도 무방할 정도로, 소설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좋은 교재로 여겨집니다. 읽고 나면 이런 시각으로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시리 즈를 내도 괜찮다 싶습니다.

읽으면서, 내가 소설이라고 여겨 책을 집어 읽었는데, 읽고 나면 소설보다는 성경 이야기가 남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깊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소설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쓴맛에서도 단맛이 있다고 합니다. 잘 만든 쓴맛의 커피를 마시다 보면, 쓴맛이 품고 있는 단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소설의 가장 큰 미덕은 ‘재미’입니다. 소설은 우선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재미를 맛으로 비유하자면 ‘단맛’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깊이는 ‘쓴맛’입니다. 이승우의 이 소설은 쓴맛이 진한 커피와 같습니다. 이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맛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은 소설이 주어야 하는 단맛을 느끼기에는 쓴맛이 더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소설을 ‘문학적 강해서’로 분류해도 되겠다 했지만, 그건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루하다는 걸 말합니다. 깊이에 전착하다 보니, 소설의 미덕이여야 할 재미가 없습니다.

한 번에 쑥 읽히는 소설이 아닙니다. 고심하게 되고 질문하게 됩니다. 언어유희 측면에서도 말바꿈을 반복하다 보니 말 속에서의 의미를 얻을 때 못지 않게 말장난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에서 가장 불편했던 건, 지나친 질문의 투적으로 자신이 깨달은 메시지를 주입시키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나는 나이도 그렇고 소설가의 경력으로도 어른이니 가볍게 쓸 수 없다. 짧은 글을 쓰더라도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 사람처럼, 시종 진지하고 엄정하며 복잡하기까지 합니다.

이 소설은 말 그대로 소설인데 말입니다. 달달한 바닐라라떼를 주문하고 마셨는데 쓴 에스프레소여서 직원에게 따졌더니, “마셔 보면 맛있게 되는 경지에 이를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해하려 하면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은, 성경을 기반으로 모든 책은 진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경전’입니다. 경전은 무거우면 무거웠지, 결코 가볍게 다루서는 안 되는 메시지를 담은 책입니다.

어설픈게 가볍게 하여 성경이 갖는 본연의 메시지를 퇴색시킬 바에는, 재미는 없애도 본연의 무게감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비유에서 말했듯 쓴맛에서도 단맛이 있는 것처럼, 성경 본연의 무게감을 견디다 보면 가벼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깊이에 서도 재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설은 기독교 소설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만 합니다. 창세기에 대한 심도 있는 사랑의 의미를 문학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분이라면(그런 측면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읽으면 없이 좋을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설이 없다고 자부할 정도로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이 감상평을 쓰기 위해 이 소설을 두 번 읽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어렵고 지루해서 방치해 두다, 넉 달 뒤 다시 읽었습니다. 그제야 이 소설의 진가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쓴맛이 주는 단맛을 살짝 느끼는 겁니다.

‘소설은 우선은 재미’라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자신의 소설관을 조금 더 넓히게 되면서, 그만큼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체험을 하게 할 겁니다.

■ 이성구(서평가)

40년 전통의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let's go 이스라엘 성지순례 **\$2,800** (전일정 항공포함)

예루살렘 7박8일

2월 20일 출발

베들레헴과 감람산과 갈릴리와 사해
다윗의 피신처, 유대광야와 만사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문의 : (213) 653-6489, (213) 819-5132
주관: 세기여행사, 파이오니아 여행사

*상기 상품의 일정과 비용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찬양사역자 청빙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LA 동부 지역에 위치한 아름다운교회에서 찬양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지원 자격
 1. 예배 찬양 인도에 대한 소명과 경험이 있는 분
 2. 성경적 가치관과 건강한 기독교 교리에 동의 하는 분
- 사역 내용
 1. 각 예배 찬양 인도 및 찬양팀 훈련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신앙 간증서
 3. 추천서
 4. 찬양 인도 동영상
- 제출하실 곳
beautifulchurch@hotmail.com
- 교회 주소: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 교회 홈페이지: www.beautifulchurch.org

아름다운교회
Beautiful Church

■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삶의 숨결 아로새겨진 <낡은 신발 한 켤레>

반 고흐의 낡은 구두, 탄광에서 복음 전하던 시절...

화가가 낡은 신발 그리는 것, 흔치 않은 일
반 고흐 선교사로 일하던 시절 착용한 구두
상처 많은 노동자에서 찾아낸 예수님 얼굴
화가 고흐, 국경 너머 그리스도의 사랑 전해

드 라 파이(de la Faille)가 발간한 '반 고흐 카탈로그 레조네'(catalogue raisonné)에 의하면, 고흐는 구두와 나막신 등 신발 그림을 총 8차례에 걸쳐 제작했다.

참고로 '카탈로그 레조네'(전작도록)란 화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삶의 기록까지 일체의 사실을 모은 도록을 말한다. 작가 연구에 필수적인 정보와 사실들을 집대성한 요긴한 자료집인 셈이다.

그 자료집에 따르면, 고흐는 1886년 이전에 농부들의 나막신 작품 두 점을 그린 적이 있다. 그것은 테이블 위에 다른 물건들과 함께 배치한 구두를 취해, 신발 자체만을 모티브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낡은 신발 한 켤레>(1886)는 고흐가 파리에 머물 때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는 고흐가 왕성하게 동시대적 미술 흐름을 익혀가던 무렵이었으나, 이 작품만큼은 예외적으로 당시의 영향에서 비껴나 있다.

화가가 낡은 신발을 그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런 누더기 신발은 그림 모티브로 그다지 탐탁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발은 마구 헤치고 더러워져 있다. 더 기본적으로 신발은 이동을 도와주는 기능적인 도구에 불과할 뿐, 예술가의 눈길을 받을만한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화면 왼쪽의 찌그러진 구두는, 그림자가 떠받쳐지지 않았다면 더 보잘것없는 존재로 추락해버렸을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고흐가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 하는 문제로 옮겨간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구두를 그렸으므로, 그림에는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다.

먼저 이 그림에 주목한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였다. 그는 1930년 암스테르담에서 이 그림을 보고 자신의 저작 《예술작품의 기원》에서 이 구두가 '농부 아내의 구두'라고 단정 지었다.

"농부의 아내는 밭에서 구두를 신고 있다. 오직 여기에서 그 구두는 진면목을 보여준다. 농부의 아내가 일하는 동안 구두를 전혀 내려다보지 않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수록 구두는 더욱 더 충실하게 본래의 모습을 띤다. 그녀는 구두를 신고 서 있다."

하이데거의 주장에 반론을 편 것은 미국 미술사학자 메이어 샤피로(Meyer Schapiro)였다. 그는 이 그림이 1886년 파리에서

그린 것이고 그림 속의 신발은 화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농부 아내'의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샤피로는 1968년에 발표한 논문 <개인전 사물로서의 정물화- 하이데거와 반 고흐에 대한 노트(The Still Life as a Object - A Note on Heidegger and Van Gogh)> 에서 만일 그림의 주인공이 농부 아내였다면 축축한 땅에 맞게 나막신을 신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듯 발목까지 올라오는 가죽신발로 보아, 이것은 도시 노동자의 신발이었으리라고 추론했다. 샤피로는 하이데거나 아리안 민족의 '농부와 땅과 피' 신화에 대한 근거를 '낡은 구두'에서 찾고 있다며 그를 비판하였다.

샤피로가 그림의 주인공을 찾아준 것은 미술사학자로서 본분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가가 자신의 낡은 구두를 그림의 주제로 고립시키는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그 자신의 운명에 대한 관심사를 표출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우리의 공감을 채워주는 것은 아니다. 정작 샤피로조차 제각각 위랄까 그림의 동기까지는 밝히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왜 이 그림을 그렸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하는 일일 것이다. 즉 이 작품을 통해 고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밝히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

샤피로는 그의 논문에서 고흐와 관련된 의미 있는 자료를 찾아냈다. 반 고흐가 아를에서 고갱과 방을 같이 쓰고 있었을 때, 고갱과 나눈 대화 내용이 그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목사였다. 그리고 그의 권고에 따라 나는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신학공부를 시작하였다. 젊은 목사로서 나는 어느 맑은 날 아침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내가 배운 대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이해한 대로 전하기 위해 벨기에로 떠났다. 당신이 보는 이 구두는 그 여행의 수고를 용감하게 견뎠다(샤피로, 1968)."

다시 말해 이 구두는 선교사로 일하던 보리나주에서의 삶을 증거하고 있다. 고흐는 광부들과 어울리면서 설교는 물론이고 그들과 고락을 함께했고, 혹시 예기치 못한 사건이라도 발생하면 그들을 치료하고 보살폈다.

탄광에서 발생한 화재, 심하게 화상을 입은 광부, 그들에 대한 헌신적인 보살핌, 그의



반 고흐, 한 켤레의 신발(캔버스에 유채, 37.5 x 45cm, 1886, 반고흐 미술관).

사랑으로 광부의 생명을 구한 기억이 그림에 담겨 있는 셈이다.

보리나주 탄광은 칠백 미터 깊이의 지하에 존재하는 미로의 도시이며, 주민 거의 전부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거기에서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브뤼셀의 복음전파 단체는 고흐가 자신의 임무를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이행했다는 이유로 직위를 박탈했다. 이로 인해 그가 받았을 충격과 좌절감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작가는 그 시절을 최고의 장면으로 기억한다. "벨기에를 떠나기 전에 나는 얼굴에 많은 상처를 지닌 그 사람의 존재에서 가시 면류관을 보았다. 마치 부활한 예수의 모습과도 같은 환상이었지(샤피로, 1968)."

고흐의 구두는 단순한 도구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엠블럼과 같은 것이면서, 동시에 그의 인생 진로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었다. 그 속에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보살피며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 했던 고흐의 참모습이 아로새겨져 있다.

고갱과의 대화에서 보듯, 해진 구두는 전쟁과도 같았던 탄광촌에서의 시간과 사역자로서의 눈물어린 수고를 말해준다. 비록 자신이 뜻한 대로 성직자의 길을 가지는 못했으나, 그림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은 계속되었다.

'화가 고흐'가 있었기에 그가 시대를 뛰어넘고,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알리게 되지 않았나 싶다.

'낡은 구두'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까지도 진행중이지만, 작가의 발언만큼 진정성이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이 작품은 게르만 여성의 건강성을 그린 것도, 도시 노동자의 삶을 그린 것도 아니다.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가 본 것처럼 문화 권력을 놓고 벌이는 쟁투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타츠키사 고테라(Tasukasa Kodera)는 고흐가 화가가 되면서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등졌다는 엄청난 오진을 내리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 작품은 그의 신앙이 화가가 된 이후에도 변함이 없이 연속, 아니 오히려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라(고후 6:10)"는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은 고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성경의 진리에서 얻었다.

이 작품은 예수님의 종으로, 또 복음 전파자로 젊음을 불태웠던 반 고흐의 삶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그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리스트
살아있는 곳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부터 시작

매직 스테이트
\$150 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 -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KIDOK SHOP

10월 15일까지

기독샵 그랜드 오픈

www.kidokshop.com

전품목
20%

장바구니에 담은 즉시 할인가 적용

기독샵 바로가기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Step 2.
우측 QR코드 스캔



scan me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위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Deals of the Week | 이번주 핫딜



퀸세스 6종 프리미엄 칼 세트

쉽게 접하기 힘든 중식도부터 야채손질 감자칼까지, 알찬 구성!

\$36.99 >> \$19.99

>> **\$15.99**



리비스타 어깨 밸런스 밴드

굽은 등! 모든 질병의 원인, 하루 30분 착용으로 등을 펴세요.

\$45.00 >> \$38.00

>> **\$3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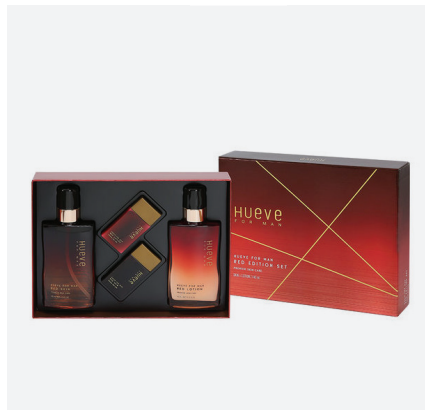


패치큐 나인슬림 셀룰라이트 패치

쉽고 빠른 붙이는 다이어트 솔루션
먹는 것보다 321% 흡수율 UP!

\$75.00 >> \$60.00

>> **\$48.00**



휴프 포맨 레드 에디션 2중세트

남성 피부 자신감을 지켜 줄
가성비 갑의 프리미엄 세트

\$59.00 >> \$48.00

>> **\$38.40**



가성비갑!

해피바스
목욕용품 선물세트

MD's PICK!

알록달록 설거지 만렙
스코이 스크럽



믿음이 커지고,
지혜가 자라는
188가지
성경 이야기

Hall of Fame | 명예의 전당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H2O (2병)

전세계 1초에 1개씩 판매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34.00

>> **\$27.20**



피에르다르장 다목적 세제 300g

프랑스에서 온 1등 국민 클리너
냄비, 가스렌지, 냉장고 얼룩, 욕실 물때,
곰팡이, 운동화까지 한번에 싹!

\$15.00

>>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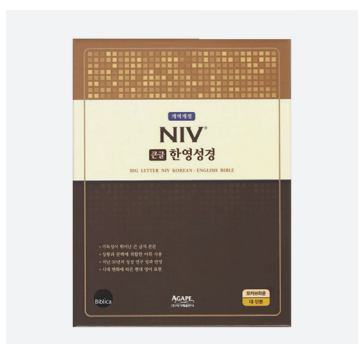
야마모토한방제약 보리새싹잎차 (2박스)

일본 9년 연속 1위, 국민 건강 지킴이
혈당관리, 콜레스테롤 완화, 체지방 감소,
면역력 증가, 해독작용까지

\$50.00

>> **\$40.00**

Christianity Products | 기독서적 & 기독용품



개역개정 NIV 큰글한영성경

대단본 / 무지퍼 / 모카브라운
지난 30년의 성경 연구 성과 반영

>> **\$78.75**



가슴 뛰는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부르심

>> **\$21.00**



내가 곧 길ियो (2583)

인테리어 말씀 액자
480 x 330 mm

>> **\$39.40**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

세상의 희망이 되는
작은 교회를 돕는 사역
예배 회복과 건강한 교회
성장을 돕는 사역



선한 기부

기독샵은 사이트 수익금의 10%를
ING 재단을 통해 WEBRIDGE에
기부합니다.

교회를 위한 선한 쇼핑